



# 비양심에 해수욕장은 ‘몸살’

### 화장실과 주차장 각종 생활쓰레기로 뒤범벅 물 마시는 음수대는 해수욕객 발 씻는 장소로

도내 해수욕장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해수욕객들의 비양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물놀이객이 차를 세우는 주차장에는 플라스틱 컵과 과자 봉지 등 생활쓰레기가 수북히 널려있고 한 칸엔 클린하우스에 있어야 할 종량제봉투들이 쌓여 있었다. 심지어 해변에서 깔고 앉았던 돗자리나 유모차, 우산 등의 폐기물도 있었다. 관광객 A씨는 “아름다운 해수욕

장 풍광을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치고 있다”며 “발생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본인이 가져가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물을 마시는 음수대에서 발을 씻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음수대에서 발을 씻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음수대 주변에 발을 씻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스티커나 팻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구좌읍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니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 청소

를 진행했다”며 “음수대의 경우 발을 씻는 행위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겠다. 또 음수대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음수대를 발 씻는 곳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덕해수욕장 화장실 입구 구석에도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도 버려져 있어 악취가 나고 있었다.

조전을 관계자는 “하루에 5시간씩 수시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도 순번을 정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너무 몰려 행정력만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화장실에 가득한 쓰레기(사진 맨 왼쪽)와 주차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가운데), 음수대에서 발을 씻고 있는 해수욕객. 강민성기자

## 품위손상 예방 공직기강 고삐 죄다

### 제주시 특별대책 추진

제주시가 ‘공직기강’을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제주시 소속 일부 공직자들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면

서 이뤄지는 것이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점검 사항별로 2-6명의 점검반을 편성, 근무시간 준수와 당직근무 수칙 이행, 수당 부정수급, 출장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체련단련실 등) 이용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전 7시 이전에 출근 후 초과근무 신청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허위 출장신고 및 수령 여부 등이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감봉-중징계’, 2회 ‘감봉-파면’의 징계를 내리고, 근무 평정이나 5급 승진인결 때도 감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성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가산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사전 예방교육 실시로 공직기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공무원 폭행 60대 여성 실형

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0

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민원 상담을 하던 중 “법원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고 소리치며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A씨는 같은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폭행 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가 2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합동참배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4·3은 제주도민 모두가 피해자”

### 어제 유족회·재향경우회 합동 참배... 군경수뇌부 첫 참석

수십 년의 반목을 딛고 화해의 손을 맞잡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여덟번째 합동참배에 나섰다. 특히 이번 참배에서는 처음으로 군·경 수뇌부까지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2일 유족회와 경우회는 제주 신산공원과 4·3평화공원에서 ‘화해와 상생 선언 8주년 기념 합동참배’를 거행했다.

유족회와 경우회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반목하며 살아오다 지난 2013년 5월 유족회 제주시, 서귀포 시지부회 창립 기념행사에 경우회 회원들이 참석하고, 같은해 6월 6일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4·3 유족회

이 총흔모지에 참석하며 닫혀있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어 그해 8월 두 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화해와 상생’을 위한 길을 걷기로 공식 선언, 매년 총흔모지와 4·3평화공원에서 합동참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총흔모지 공사로 인해 참배 장소가 신산공원으로 대체됐다.

이날 참배에는 유족회와 경우회 관계자 외에도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합동참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강항수 제주경찰청장, 박성순 해병대 제9여단장, 광광섭 해군 제7

기동전단장 등 군·경 수뇌부가 참가,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2013년 당시 유족회와의 화해를 이끈 현창하 전 제주경우회장은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합동참배가 가능했다”며 “이러한 4·3의 의미를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는 행위는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임종 유족회장도 “올해는 특별법 전부 개정 등 4·3 역사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여기에 군경 지도부까지 합동참배에 동참하면서 4·3의 화해와 상생의 의미도 함께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원 지사 남은 임기동안 송약선언 실천을”

### 6개 환경단체 도청 앞 회견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대권에 도전하는 원희룡 도지사에 “제주생태계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남지 않으려면 남은 임기동안 송약선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비저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 6개 시민환경단체는 2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0월 송약선언에서 제주의 자연경

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허가하지 않고 제주 난개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청정제주 송약선언’과 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원 지사는 환경부의 제2공약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을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돼지분뇨와 농약으로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바다로 흘러가 바다 생명을 죽이고 있고, 오염된 물과 식품이 되돌아와 생명자체가 위협받고 있지만 도청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서사라사거리 4중 추돌

차량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2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쯤 제주시 삼도1동 서사라사거리에서 쏜토, 아반떼, 니로 ev, 포터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니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포터 트럭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로 인해 주변도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 문서작성 실무자 양성 저녁반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취득) 과정

교육기간 2021. 08. 10(화) ~ 11. 3(수)

교육시간 월~목(주4회) 19:00 ~ 22:00 (3교시) / 132h

교육내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3가지 전부 수강)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an.com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유구로 100 (목포시 유구동) 제원직업전문학교

문의: 064-749-3434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